

# 漢字의 언어적 특성에 관한 小考

— 교육과정해설서의 ‘漢字영역’을 중심으로 —

鄭 順 泳 \*

<目 次>

I. 序論	2. 한자는 왜 表意文字라고 하는가
II. 本論	3. 한자의 음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 ‘한자영역’의 교수·학습 내용 변천	III. 結論 및 提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교육과정해설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언어학적 관점에서 漢字 (Chinese characters)의 表意文字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聲符가 같은 形聲字와 多音字의 독음유추 방법에 관한 연구다. 먼저 7차 한문과 교육과정해설서와 2007년 개정된 한문과 교육과정해설서, 그리고 2011년 개정된 한문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漢字영역’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고찰하며, 한자의 언어적 특성을 ‘한자는 왜 표의문자라고 하는가’, ‘한자의 음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發問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교육과정해설서의 내용 서술에 있어서 재고하여야 할 점을 제언한다.

개정교육과정이 ‘漢文’교육중심으로 전환되었다고 해도 ‘한자영역’은 한문 교과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학습요소다. 한문을 잘 가르치고 배우려면 漢字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자의 언어적 특성에 대

\* 충남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 7743jsy@hanmail.net

한 이해는 한자와 관련된 어휘, 문장은 물론 한자문화권과의 소통과 문화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이다. 본 논문이 단편적일 수 있지만, ‘漢字’의 表意, 表音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漢字’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한자인식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보다 심도 있는 후속논문이 나오길 기대한다.

【주제어】 漢字, 表意文字, 表音文字, 形聲字, 聲符

## I. 序論

‘漢字영역’의 교수·학습내용은 한문교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학습요소라 할 수 있다. ‘한자영역’은 2007년 개정된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서(이하 2007개정)와 2011년 개정된 한문과 교육과정(이하 2011개정)에서 대영역인 ‘한문지식’의 중영역으로 학습하게 되어 있다.<sup>1)</sup> 그 내용은 한자의 表意文字의 특성에 대한 설명과 形·音·義이해, 여러 가지 음과 뜻, 한자의 짜임, 부수, 필순, 자전 찾기, 한자의 형성과정과 자형의 변천 등 한자의 언어적 특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7차 교육과정해설서에 비하여 상당히 세분되고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한문을 잘 가르치고 배우려면 漢字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한자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한자와 관련된 어휘는 물론, 문장 나아가 한자문화권과의 소통과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교과서집필의 근본인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한자의 성질인 ‘表意文字’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기존의 ‘한자’·‘한자어’·‘한문’이라는 3단계 영역체계에 대하여 2007개정의 내용체계는 ‘한문’과 ‘한문지식’의 2개의 대영역으로 전환하였고, 2011개정의 내용체계는 ‘독해’·‘문화’·‘한문지식’의 3개의 대영역으로 바뀌었다.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形)·소리(音)·뜻(義)의 세 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문자이다. 곧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단지 어떤 음(音)의 단위만을 나타내는 표음문자(表音文字)와 달리, 하나의 글자가 어떤 뜻의 단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뜻에 해당하는 소리까지도 아울러 나타내는 표의문자(表意文字)이다.<sup>2)</sup>

위의 해설서 설명과 같이 한자는 뜻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아울러 나타낸다고 한다. 또한 문자라는 것은 음성의 반영이므로 한자도 소리를 나타낸다. 그러면 한자를 表意文字이면서 表音文字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또 교육과정해설서의 ‘한자의 짜임’에서 형성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형성자(形聲字)’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뜻을 나타내되, 일부는 뜻(形)을 나타내고 일부는 음(聲)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洋’은 이미 만들어진 ‘水(氵)’와 ‘羊’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水’는 ‘물’과 관련된 뜻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羊’은 ‘양’이라는 음을 나타내어, 결국 ‘洋’은 ‘바다’라는 뜻과 ‘양’이라는 음을 지닌 새로운 글자가 된 것이다.<sup>3)</sup>

위의 설명처럼 ‘羊’을 구성요소로 하는 ‘洋’은 ‘羊’과 발음이 같아 독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聲符를 가지고 있는 ‘祥’에서는 한국 한자음의 독음이 완전히 같지 않다. 이와 같은 동일한 聲符를 가진 形聲字와 여러 음을 가진 多音字의 독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의문에서 시작 되었다.

그동안 ‘漢字영역’과 관련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주로 한자의 字源을 활용한 教授·學習방법과 내용들로 한자를 쉽게 익히는 방법과 관련된

2)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및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해설서 V』, 교육과학기술부, p.175.

3) 교육인적자원부, 위의 책, pp.178-179.

논문들이 대다수이다.<sup>4)</sup> 이와 달리 본 논문은 교육과정해설서에 설명되어진 한자의 表意, 表音의 특성의 이해를 논하면서 내용서술상의 문제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한자영역’의 교수·학습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한문과 7차 교육과정해설서와 2007년에 개정된 교육과정해설서, 그리고 2011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자영역’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단히 고찰해보고, ‘한자는 왜 표의문자라고 하는가’, ‘한자의 음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發問형식으로 한자의 表意文字에 대한 언어적 특성을 한글과 대조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形聲字와 多音字의 독음 유추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본 논문이 어떤 논거를 제시하여 서술한 것이 아니므로 단편적일 수 있다. 그러나 ‘漢字’의 表意, 表音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자’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두고자 한다.

## II. 本論

### 1. ‘한자영역’의 교수·학습 내용변천

‘漢字영역’의 중요성은 교과서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2007개정에 따라 만들어진 중학교 1학년 교과서들을 살펴보면, 다수의 교과서에

4) 김영옥, 「한자교육에서의 構形學 응용에 관한 연구」, 『漢文教育研究』 第20號,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양원석, 「중국에서의 자원을 활용한 한자교육 방법」, 『漢字漢文教育』 第14輯,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이권홍, 「한자 교수방법의 실제」, 『漢字漢文教育』 第24輯,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0.; 한연석, 「構形學이론을 적용한 한자학습 신장 방안」, 『漢字漢文教育』 第14輯,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5.; 「字源을 활용한 한자 교수학습방법연구-고등학교한 문교과서를 중심으로-」, 『漢字漢文教育』 第17輯,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한은수, 「構成主義 字源 學習法을 活用한 漢字 教授·學習 研究」, 한국교원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서 ‘한자·한문’의 이해에 대한 단원을 따로 설정하여 기초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5)</sup> 이들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한자영역’의 교수·학습내용은 ‘한문을 배우기 전에’, ‘한자와 친해지기’, ‘한문학습의 시작’, ‘한문의 첫 걸음’, ‘한문과의 첫 만남’, ‘한문과의 만남’, ‘입문’ 등의 대단원명으로 ‘한문학습의 필요성’, ‘한자의 짜임’, ‘자전과 부수’, ‘한자와 한문의 차이’, ‘한자의 3요소’, ‘한자의 기원’, ‘한자 자체의 변천과정’, ‘한자와 단어’, ‘한문문장이란’ 등의 내용으로 교육과정해설서 ‘한자영역’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한문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漢字와 漢文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漢文科 첫 수업시간에 주로 한자·한문을 배우는 이유와 한자의 表意文字의 특성 등 ‘한자영역’의 학습에 대한 설명을 먼저 선행하고서 단원의 한문학습을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에 의해 진행했던 것을 아예 교과서의 한 단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한문을 배우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漢字’에 대한 언어적 특성의 이해가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한자영역’의 교수·학습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한문과 7차 교육과정 해설서와 2007개정 교육과정해설서, 2011개정 교육과정의 ‘한자영역’의 教授·學習내용의 변화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5) 김상홍·이강렬·박세경·한상조·김우정·김진봉, 『중학교 漢文1』, 지학사, 2009.; 김홍철·신태영·강태선·이계원·김정훈·오국진, 『중학교 漢文1』, 장원교육, 2009.; 박성규·윤재민·정동운·장진아, 『중학교 漢文1』, 두산동아, 2009.; 송재소·조병덕·배기표·김호기·변유경, 『중학교 漢文1』, 다락원, 2009.; 정환국·안기봉·황성하·양재훈·이한신·장현근, 『중학교 漢文1』, 천재교육, 2009.; 진재교·신영주·최돈욱·임성원, 『중학교 漢文1』, 장원교육, 2009.; 황형주·김명수·최호영·신상필·안준용, 『중학교 漢文1』, 지학사, 2009.

	7차 교육과정 <sup>6)</sup>	2007년 개정 교육과정 <sup>7)</sup>	2011년 개정 교육과정 <sup>8)</sup>
	-한자- <한자 익히기> <한자 활용하기> [1-한자-(1)]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바르게 읽는다. [1-한자-(2)]한자의 음과 뜻을 한자의 짜임을 통해 안다. (가)상형 (나)지사 (다)회의 (라)형성 (마)전주 (바)가차 [1-한자-(3)]자전에서 한자의 음과 뜻을 찾는다. [1-한자-(4)]한자의 기본 필순을 알고 바르게 쓴다. [1-한자-(5)]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어를 이해하고, 언어생활에 활용한다. [1-한자-(6)]한자를 이용하여 문장의 내용을 이해한다.	-한문- <읽기> <이해> <문화> -한문지식- <한자> 한자의 특징 한자의 짜임 한자의 역사 [1-한자-(1)]한자의 형·음·의를 안다. [1-한자-(2)]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안다. [1-한자-(3)]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을 찾을 수 있다. [1-한자-(4)]한자를 바르게 읽고 쓸 수 있다. [1-한자-(5)]상형·지사자의 짜임을 안다. [1-한자-(6)]회의·형성자의 짜임을 안다. [1-한자-(7)]한자의 형성 과정을 이해한다. (한자발생 갑골문 금문) [1-한자-(8)]한자 자체(字體)의 변천 과정을 이해한다. (갑골문 금문) [[2-한자-(7)](소전(小篆)) [2-한자-(8)](전서, 예서, 해서) [3-한자-(7)](한자의 증가 과정) [3-한자-(8)](초서, 행서, 약자)	-독해- <읽기> <이해> -문화- <한자문화> <언어생활과 한자문화> -한문지식- <한자> (1)한자의 형(形)·음(音)·의(義)를 알 수 있다. (2)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알 수 있다. (3)한자의 부수(部首)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 (4)필순(筆順)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한자를 쓸 수 있다. (5)한자의 짜임을 알 수 있다. (6)한자의 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고등학교 (3)바른 모양과 순서를 고려하여 한자를 쓸 수 있다. (4)상형·지사·회의·형성자의 짜임을 알 수 있다. (5)한자 자체(字體)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다.
내	<한자어- <한자어 익히기> <한자어 활용하기> <가치관 형성하기>  <한문- <한문 익히기> <한시 익히기> <한문 활용하기> <가치관 형성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시키기>	<어휘>  <문장>	<어휘>  <문장>
용			

‘한자영역’의 내용은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에서 제시한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된 기본적인 내용요소이다.

7차 교육과정과 2007개정을 비교해 보면, 영역구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7차 교육과정의 ‘한자’·‘한자어’·‘한문’의 영역구분을 2007 개정에서는 ‘한문’과 ‘한문지식’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는 한자·한자어 중심의 도구 교과적 성격에서 벗어나 ‘漢文’중심의 교육으로 한문과 교과목의 정체성을 정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漢字’에 관한 학습내용을 살펴보면, ‘한자의 특징’, ‘한자의 짜임’은 7차 교육과정과 2007개정 모두 학습요소로 제시되었지만, ‘한자의 짜임’에서는 학문적으로 이견이 많아 논쟁이 되어 왔던 ‘轉注’와 ‘假借’를 2007 개정에서 삭제하였다. 그 이유는 학설이 다양하여 학습에 혼돈을 주기 때문에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위주로 학습하게 한다고 하였다. 비록 ‘假借’가 교육과정에서는 삭제가 되었더라도 교과서의 내용에 실려 있는 ‘正堂堂’)이나 ‘讀書三昧境’에서 ‘三昧’를 한자 그대로 직역하여 풀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假借에 대한 학습을 교육현장에서 교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7차 교육과정의 ‘한자 활용하기’내용도 삭제되었다.

추가된 내용으로는 그 동안 다루지 않았던 ‘한자의 형성과정’과 ‘한자 자체의 변천과정’을 2007개정에서 추가하였는데, 이는 ‘한자의 역사’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새롭게 설정된 학습내용이다. ‘한자의 형성과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자의 출현과 그 당시 한자

- 
- 6) 교육부고시 제 1997-15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 교육부.
  - 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및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해설서 V』, 교육과학기술부.
  - 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호[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9) 심경호·송혁기·송태명, 『중학교 漢文2』, 대교, 2009. p.12.

가 기록되어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한자 자체의 변천과정’의 내용은 한자 글자모양의 변천으로 글자체의 특징과 모양을 설명하고 있다. ‘한자의 형성과정’에서의 1학년 학습내용은 한자의 기원, 갑골문, 금문 등의 형성과정이며, 2학년 학습내용은 소전의 형성과정을 다루면서 許慎의 『說文解字』에 소전자가 수록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3학년의 학습내용은 한자의 증가과정을 통하여 중국역대사전과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權丙勳의 『六書尋源』과 수록자수를 소개하고 있다.

‘한자자체의 변천과정’에서의 1학년 학습내용은 갑골문, 금문을 학습하게 되어 있고, 2학년에서는 전서, 예서, 해서체, 3학년에서는 초서, 행서, 略字의 이해를 학습요소로 하여 한자의 역사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로 설명되어 있다.

‘한자의 형성과정’과 ‘한자자체의 변천과정’에 대한 학습요소 추가는 漢字字源을 통한 교수·학습방법이 이미 보편화 되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울러 한자자원을 통해 그 文化를 알 수 있으며, 특히 한자문화권인 일본의 略字와 중국의 簡化字에 대한 소개는 漢字文化圈과의 소통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과거 교육과정에 비하여 ‘한자영역’의 내용은 상당히 심화되어 있다.

2011개정은 2007개정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대영역 구분에서 2007개정의 ‘한문’영역이 2011개정에서는 ‘독해’와 ‘문화’로 구분 하고 있다. 이는 2007개정 ‘한문영역’의 대영역 체계 명칭이 ‘한문’교과의 명칭과 같아서 그 함의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사용할 경우로 보여 ‘한문’의 대영역을 ‘독해’와 ‘문화’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한자영역’의 학습내용을 살펴보면, 2007개정 중학교의 ‘[1-한자-(7)]한자의 형성과정을 이해한다.’와 ‘[1-한자-(8)]한자 字體의 변천 과정을 이해한다.’는 학습내용을, 2011개정은 학교 급별을 달리하여 ‘한자의 형성과정’은 중학교에서, ‘한자 자

10) 안재철, 「개정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의 문제점」, 『漢字漢文教育』 第24輯,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0, p.23.



체의 변천과정'은 고등학교의 학습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실 '한자의 형성과정'과 '한자자체의 변천과정'의 내용은 서로 밀접히 관련이 있어 학교급별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한문지식'영역의 '한자영역' 내용은 종래의 교육과정에서의 교수·학습내용에 비하여 상당히 체계적이고 세분화 되어 단순히 '한자'에 대한 학습이 아니라 한자의 字形, 한자의 歷史, 나아가 한자문화권의 文化와 소통에 대한 이해로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자의 형성과정'과 '한자 字體의 변천과정'이 포함된 것은 字源을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이 이미 보편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만 외래어의 한자표기라든지 의성어, 의태어에서의 한자 학습을 위하여 '假借'에 대한 학습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정해설서에서 再考해야 할 것을 제언한다.

## 2. 한자는 왜 表意文字라고 하는가

본 절에서는 한자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리 문자인 한글과 대조하여 한자를 왜 表意文字라고 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漢字의 문자적 성질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단순히 表意文字로 보느냐, 아니면 表音文字이면서 表意文字 즉 意音文字로 보느냐의 문제이다. 그런데 한자를 흔히 音節文字라고도 한다. 그러나 표의문자와 표음문자의 구분은 문자의 表象방법에 근거한 분류이며, 음절문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의 기록단위를 근거로 분류한 것으로 분류방법상의 차이에 따른 명칭이다. 그러므로 한자의 문자적 성질을 표상방법에 따른 종류와 기록단위에 따른 종류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다.<sup>11)</sup>

문자분류학의 선구자인 Taylor(1899)는 세계의 문자종류를 표음문자와

11) 李大遂저·李容誠역, 『簡明實用 漢字學』, 중문출판사, 2001, p.13.

표의문자의 2분법으로 설정하였으며, Istrin(1965) 등에 의해 수용되어 지금까지 한자를 表意文字로 분류하고 있다. 意音文字설은 周有光(1998)에 의해 처음 제창되었는데, 표의문자와 표음문자설을 절충한 것으로 表意와 表音이라는 두 종류의 表達[表現] 방법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문자를 意音文字라고 정의하고 漢字가 이에 속한다고 하였다.<sup>12)</sup> 교육과정 해설서의 설명에서도 ‘하나의 글자가 어떤 뜻의 단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뜻에 해당하는 소리까지도 아울러 나타낸다’라고 하면 意音文字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자를 표의문자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文字의 유형은 언어기호의 두 요소인 시그니피앙[記標, 음성]과 시그니피에[記意, 의미] 중에서 무엇을 表象하느냐는 문자 표현 방법에 따라 表意文字와 表音文字로 대별할 수 있다.<sup>13)</sup> 文字는 음성언어와 직접적 연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모양[形]·소리[音]·의미[意]의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의미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sup>14)</sup> 한자라는 문자는 표기하는 단위가 單語로 언어의 의미 즉 내용이기 때문에 表意文字라 하고 形·音·意의 세 요소를 모두 갖추었다. 즉 의미를 갖추었기 때문에 ‘衣’와 ‘醫’가 비록 같은 발음이 나더라도 의미가 다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과정해설서에서 ‘한자를 학습할 때는 해당 글자의 모양과 소리와 뜻을 동시에 익혀야 한다’고 하였다.

表意文字는 시그니피에[의미]를 표상하기 때문에 의미를 직접 표현하지 음성을 직접 표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자 형태인 字形은 字音과는 불분명하고 字意를 직접 표현하기 때문에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사이에 음성의 매개 없이도 문자를 통해 직접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개념을 문자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문자기호가

12) 전광진, 「한자의 성질에 관한 제 학설 탐구」, 『中國言語研究』 第13輯, 2001, pp.260-266.

13) 김기혁·최상진·김진혜·방성원·홍윤기, 『언어이야기』, 경진, 2011, p.79.

14) 서종학, 『문자생활의 역사』,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5, pp.19-20, p.36.

많다. 그러나 表音文字는 시그니피앙[음성]을 표상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문자의 수가 적지만 문자 자체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고, 전달하고자 하는 사물이나 개념이 약속된 음성으로 바뀌고 음성은 다시 가시화된 문자로 바뀌며, 그것이 다시 음성으로 바뀌어 원래의 개념으로 환원되는 음성의 매개를 통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그럼 한글과 한자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한글	한자
문자기호[形]	나무	木
음성기호[音]	[namu](나무)	[mù](목)
의미[개념][意]	줄기가 단단하고 가지가 달린, 여러 해 동안 사는 식물	木 줄기가 단단하고 가지가 달린, 여러 해 동안 사는 식물
언어기록단위	음소 : ㄴ+ㅏ+ㅍ+ㅓ	음절, 형태소, 단어

위 표에서 한글과 漢文의 문자 표상방법을 살펴보면, 같은 의미에 대하여 문자의 모양[形, 형태]과 음성[音]을 달리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의미[개념]에 대하여 문자의 형태[形]와 소리[音]의 기호는 言衆에 따라 약속되어 달리 표현되는 것으로 언어의 恣意性이다.

한글에서는 문자의 형태[모양, 形]가 소리[音]를 그대로 표현하여 문자 형태와 소리가 같다. 이는 한글이라는 문자의 형태는 발음[소리]을 그대로 1차적으로 직접 표현한 表音文字임을 알 수 있다. 음성이 다르면 문자의 형태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자의 문자 형태[形]는 나무를 의미하는 음성과는 상관없이 나무의 모양이 線化된 것으로, 의미를 1차적으로 표현한 表意文字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목’이라는 음성에 해당하는 문자가 ‘木’ ‘目’ ‘牧’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이 넓은 지역 간의 소통이 가능한 이유가 문자형태가 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자의 90%에 달하는 형성자에는 독음을 나타내는 편방이 있다고는 하지만 聲符로만 쓰이는 편방과 意符로만 쓰이는 편방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洋’, ‘養’에서는 ‘羊’이 성부로 쓰이지만, ‘群’에서는 의부로 쓰이고 있다. 또한 형성자를 구성하는 상형자, 지사자 또한 표음성분이 없어 억지로 외워야 한다. 게다가 형성자 ‘洋’과 ‘詳’에서 성부 ‘羊’을 찾았더라도 ‘詳’에서는 성부 ‘羊’의 음가를 일정하게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자를 表音文字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형성자가 표음성분을 나타내더라도 그 성부가 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婚’에서 형성자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의부이지만, 성부 ‘昏’도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자는 문자 표상방법에 있어서는 표의문자라고 할 수 있다.

언어 기록단위를 살펴보면, 한글의 문자 형태는 음성을 표상한 것으로 음성의 기록단위가 자음과 모음의 音素로 분석되는 音素文字이면서 동시에 모아쓰기 때문에 音節文字의 효과를 낼 수 있는 表音文字이다. 반면, 한자의 문자 형태는 음성을 표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축물과 같은 결합체로써 어떤 구체적 사물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表象한 것이다. 처음에 한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글자로 單音節 단어 한 개를 기록했다. 그래서 초기 한자의 ‘1음절-1어휘’가 대부분일 때는 한자를 音節문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을 더욱 정밀히 표현하기 위하여 점차 多音節 단어가 출현하게 됨으로 해서 음절문자라고 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언어단위 중에서 소리와 뜻이 결합된 가장 작은 단위를 形態素(morpheme)<sup>15)</sup>라 하므로 한자를 形態素文字라고 할 수 있다. 형태소 문자 설은 趙元任에 의해 최초로 제창되어 呂叔湘, 朱德熙 등이 그의 학설을 따르고 있다.<sup>16)</sup> 조원임은 한자가 형태소를 기록한 문자임을 구체적으로

15) ‘morpheme’를 ‘語素’, ‘詞素’라는 용어로 쓰기도 한다. (蘇培成 著·李圭甲 譯, 『現代 漢字學』, 學古房, 2007, p.16. 참조.)

16) 전광진, 「한자의 성질에 관한 제 학설 탐구」, 『中國言語研究』第13輯, 2001, p.269.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자 가운데, 언어의 모든 성분을 완전하게 기록할 수 있는 문자 중에서, 표기 수단으로 쓰인 단위가 가장 큰 문자는 문장을 적거나 短語를 적는 것이 아니라, 문자라는 하나의 단위로 하나의 형태소를 적는 것이다. 이를 떼면 단독으로 쓰인 ‘毒’이란 하나의 자형은 ‘독’(poison)이라는 하나의 형태소를 적은 것이다.<sup>17)</sup>

중국문자는 전형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예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이 세계 대부분의 기타 문자와 다른 점은 뜻을 나타내고 음을 나타내는 차이가 아니라, 나타내는 단위의 길이가 다르다는 것이다.<sup>18)</sup>

라고 하면서, 한자를 形態素文字[語素文字, 詞素文字]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자가 ‘나타내는 단위의 길이’로 한글은 음소문자이며, 한자는 형태소문자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자는 문자의 표상방법에 근거하면 表意文字이며, 언어의 기록단위로 보면 形態素文字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보면, 교육과정해설서에서 한자의 성질에 대한 규정을 단순히 ‘표의문자’라고만 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을 제언한다.

### 3. 한자의 음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교육과정해설서에서 形聲字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형성’의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한자의 짜임은 사물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상형’, 점이나 선으로 추상적인 뜻을 나타내 보인 ‘지사’ 등의 방법과는 크게 다

17) 趙元任, 『言語問題』, 臺灣商務印書館, 臺北: 1968, p.136. (전광진, 「한자의 성질에 관한 제 학설 탐구」, 『中國言語研究』 第13輯, 2001, p.270. 재인용)

18) 趙元任, 위의 책, pp.138-139. (전광진, 위의 논문, p.270. 재인용)

른 방법으로, 기존의 한자를 가지고 소리와 뜻을 나타낼 수 있는 한자를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언어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숫자에 해당하는 수많은 ‘형성자’가 만들어졌으며, 전체 한자의 70% 이상이 ‘형성자’에 속한다. 형성자는 형(形)과 음(音)의 짜임학을 통하여 한자자체의 음(音)을 짐작할 수 있고, 뜻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한자학습의 흥미와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문자인 것이다.<sup>19)</sup>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형성자의 점유율을 7차 교육과정해설서와 2007개정교육과정해설서에서는 70%이상이 형성자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형성자는 은대 甲骨文에는 약 20%정도였으나 『說文解字』에 이르러 형성자는 80-90%를 차지한다고 한다.<sup>20)</sup> 지금은 90%에 이르고 있다.<sup>21)</sup> 이에 대한 교육과정해설서 서술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다.

이와 같이 한자의 대다수가 형성자이며, 형성자의 구성 원리상 독음과 뜻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한자의 음과 뜻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은 새로운 한자를 봤을 때 정확하게 한자를 읽을 수 없다. 이는 근본적으로 한자가 발음을 기호화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체한자의 90%이상이 형성자임을 볼 때, 동일한 성부를 가진 形聲字와 여러 음을 가진 多音字에서 독음 변화양상에 대한 규칙성을 알면 한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교육과정해설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형성자를 통한 한자학습의 효과와 흥미를 제고 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동일한 聲符를 가진 形聲字와 여러 음을 가진 多音字의 音價 변화현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sup>22)</sup>

1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및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해설서 V』, 교육과학기술부, p.179.

20) 이규갑, 『漢字學教程』, 차이나하우스, 2009, p.145.

21) 王力 著, 李鍾振·李鴻鎮 共譯, 『中國言語學史』, 啓明大學校出版部, 1983, p52.

22) 본절의 形聲字와 多音字의 음가변화현상은 최동표·안종남 공저, 『한자정석』(신아사, 2011.)과 김종혁 저, 『형성자 중심 한자교육 시험백과』(전통문화연구회, 2002.), 金崇浩, 「漢字音을 活用한 漢字指導 方法論 試考-形聲字의

한국 한자음과 중국의 한자음이 같게 또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한자가 최초로 유입되었을 당시의 음상은 반드시 그 지역의 한음[중국어]과 매우 근사하게 실현되었을 지라도 시간적 공간적 조건에 의하여 점차 한국어의 음운체계에 동화되거나, 또는 이에 알맞게 변용되면서 마침내 한국어의 음운체계가 형성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sup>23)</sup> 중국의 발음체계와 다른 우리나라는 우리말의 체계에 맞게 한자음이 변화 발전하였을 것이다.

한국한자음을 기준으로 같은 聲符를 가진 형성자를 초성자음, 중성모음, 종성자음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초성자음을 訓民正音의 初聲[子音]체계를 기준으로 보면 첫째, 성부가 같은 형성자에서 초성자음의 기본성부의 초성음가가 ‘ㄱ, ㅇ, ㅎ’ 등은 같은 발음 장소에서 나는 牙音, 喉音간의 변화현상을 많이 보인다. 즉 성부의 초성이 ‘ㄱ’인 경우 그대로 ‘ㄱ’으로 발음되기도 하지만 ‘ㅎ’이나 ‘ㅇ’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干(간)을 기본 성부로 하는 형성자의 초성자음이 ‘干, 杆, 竿, 肝, 秆, 杆, 秆’에서 그대로 ‘ㄱ’으로 반영되기도 하지만 ‘軒, 旱, 悍, 罕, 汗(한)’에서와 같이 ‘ㅎ’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岸(안)’에서와 같이 음가가 제로인 零聲母 ‘ㅇ’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多音字에서는 ‘見’이 ‘견’과 ‘현’으로 독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연구개음과 성문음의

聲符를 中心으로-」(『漢文學研究』 제16집, 啓明漢文學會, 2002.)의 내용을 참고 하였음을 밝힌다.

- 23) 이돈주, 「한국한자음의 몇 가지 특징」, 임용기·홍윤표 편, 『연세국학총서 66 국어사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2006, p.261.

“대체로 한국 현대 한자음은 학자마다 다소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중국 중고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엄익상, 『중국언어학 한국식으로 하기』, 한국문화사, 2002, p.29.)

“漢語의 각 시대 자음들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으나, 일부는 받아들일 때의 음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고, 일부는 언제나 국어의 음운체계 안으로 흡수되어, (중략) 오늘날 현대 국어 안에서 막대한 양의 한자어와 한자음이 현대 국어의 음운과 동일한 모습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姜信沆, 『韓漢音韻史 研究』, 태학사, 2004, p.276.)

조음점이 매우 유사하며, 다만 과일·마찰음의 차이만 존재하기 때문에 두 음이 변별되지 못하고 같은 음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sup>24)</sup>

多音字의 예로는 降(강/향), 活(활/괘)를 들 수 있으며, 형성자의 예로는 告(고-浩, 皓, 濇, 皓호-酷혹), 古(고-苦, 故, 枯, 姑, 固고-個, 箇개-据, 倨, 居거-湖, 胡, 蝴, 糊호), 工(공-恐, 攻, 貢, 空, 功공-缸, 江강-缸, 肛, 項항-誼, 虹, 紅, 鴻홍), 今(금-琴, 衾, 衿금-黔검-습함-吟, 蔭, 陰음), 見(견-倪, 峴, 峴, 現현-硯연)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성부가 같은 형성자에서 기본성부의 초성음가가 ‘ㄴ, ㄹ, ㄱ’ 등은 같은 발음장소에서 나는 唇音간의 변화현상을 보인다. 예를 들면, ‘武(무)를 기본 성부로 하는 형성자의 초성이 ‘鵠, 賦(무)’에서는 그대로 ‘ㄱ’으로 반영되지만, ‘賦(부)’에서는 같은 발음장소에서 나는 순음‘ㄴ’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와 같은 예로 多音字에서는 便(편/변), 幅(폭/복), 형성자에서는 反(반-返, 飯반-坂, 板, 版, 販판), 必(필-秘, 泌비-毖비), 甫(보-博, 搏, 薄박-輔, 補보-傅, 賄, 溥, 專부-捕, 哺, 浦포)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성부가 같은 형성자에서 기본성부의 초성음가가 ‘ㄷ, ㅌ, ㄴ’ 등은 같은 발음장소에서 나는 舌音간의 변화현상을 보인다. 예를 들면, ‘奴(노)를 기본 성부로 하는 형성자의 초성이 ‘努, 弩, 怒, 駑(노)나 ‘拏(나)’에서는 그대로 ‘ㄴ’으로 반영되나 ‘拏(탕)’에서는 같은 발음장소에서 나는 설음 ‘ㄷ’으로 반영된다.

그와 같은 예로 多音字에서는 度(도/탁), 宅(택/택)이 있으며, 形聲字에서는 單(단-鄚, 簞단-憚, 彈탄), 同(동-叢, 侗, 桐, 洞, 胴, 銅동-恫, 筒통), 卓(탁-倬, 晫, 瑋탁-悼, 掉, 棹도)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성부가 같은 형성자에서 기본성부의 초성음가가 ‘ㅈ, ㅊ, ㅅ’ 등은 같은 발음장소에서 나는 齒音간의 변화현상을 보인다. 예를 들면, ‘寺

24) 李潤東, 『中期 韓國 漢字音의 研究-聲母篇』, 牛骨塔, 1988. (金崇浩, 『漢字音을 活用한 漢字指導 方法論 試考-形聲字의 聲符를 中心으로-』, 『漢文學研究』 제16집, 啓明漢文學會, 2002. 재인용)



(사)를 기본 성부로 하는 형성자의 초성음가가 ‘薛 時 侍, 詩, 恃(시)’에서는 그대로 ‘ㅅ’으로 반영되나 ‘持(지)’, ‘峙 痔(치)’에서는 같은 발음장소에 서 나는 설음 ‘ㅈ’과 ‘ㅊ’으로 반영된다.

그와 같은 예로, 多音字에서는 參(삼/참), 狀(상/장), 衰(쇠/쇠), 辰(진/신), 徵(징/치), 氏(씨/지), 刺(자/척), 切(절/체), 則(칙/즉), 沈(침/심) 등과 형성자에서는 尙(상-常, 賞, 嘗, 裳, 償상-掌장-敞, 廠창), 妻(치-淒, 悽처-捷, 棲서), 昔(식-惜식-藉자-鵠, 籍, 藉작-措조-借차-錯착-醋초), 眞(진-鎭, 纈, 眞, 眞진-顛, 填, 癲전-愼신), 殘(전-棧, 殘, 蓋 잔-箋, 錢, 錢전-淺, 賤, 踐전), 至(지-窒, 姪, 桎질-致차-室실), 辰(진-唇, 震, 賑, 振, 振진-脣순-娠, 晨, 宸신), 次(차-姿, 恣, 茨, 資, 棗, 咨, 諮자), 此(차-疵, 紫, 雌, 訛자), 靑(청-請, 靑, 淸, 鯖, 晴, 蜻蜻-倩전-情, 精, 靖, 睛정), 川(천-玗, 鈞천-巡, 順, 馴순), 佳(추-椎, 錐, 推추-讎, 誰, 雖수)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같은 성부를 기본으로 하는 형성자의 초성자음 舌音, 牙音, 喉音이 조음 위치상 구개음인 齒音의 음가로 변화되는 현상이 있다. 이는 한자음의 구개음화로 볼 수 있는데 중국어의 영향이 아닌 한국어 자체적인 변화로 보기도 한다.<sup>25)</sup> 예를 들면, 성부의 초성음가가 舌音인 ‘壇(단)’을 성부로 하는 형성자 ‘壇, 檀(단)’에서는 그대로 ‘ㄷ’으로 반영되지 만, ‘顛, 氈, 檀(전)’에서는 구개음인 ‘ㅈ’으로 반영되고 있다.

多音字에서는 茶(다/차)<sup>26)</sup>, 單(단/선), 拓(탁/척)을 예로 들 수 있으며, 형성자로는 攄(단-端, 湍, 端단-喘, 遄천-瑞 서), 單(단-鄂, 簞단-憚, 彈단-戰전-闡전-禪, 嬋, 蟬선), 寺(사-時, 侍, 詩, 恃시-持지-峙, 痔치-待대-特특-等等), 刀(도-召소-照조), 童(동-瞳동-鐘중), 屯(둔-鈍둔-頓돈-純순-邨촌), 登(등-燈등-澄정-證증), 尙(상-常, 賞, 嘗, 裳, 償상-掌장-當, 堂당), 壽(수-燾, 禱, 濤도-躊, 鑄, 疇주) 등을 들 수 있다.

牙音 ‘ㄱ’의 초성음가가 구개음으로 반영되는 예로는 ‘告(고)’를 성부

25) 엄익상, 『중국언어학 한국식으로 하기』, 한국문화사, 2002, p.334.

26) 엄익상은 [다]가 상고음이고 [차]가 중고 이후의 음임을 밝혀 서로 다른 시기에 전래된 음이 공존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엄익상, 위의 책, p.333.)

로 하는 형성자 ‘造(조)’에서 아음 ‘ㄱ’이 구개음인 ‘ㄷ’으로 반영 된다. 예로, 多音字에서는 車(거차)와 형성자에서는 公(공-松, 訟, 頌, 淞)을 들 수 있다. 牙音 ‘ㅇ’의 초성음가가 구개음으로 반영되는 형성자로는 羊(양-祥, 詳양-翔상), 易(양-傷, 觴상-場, 腸장-暢창-湯, 蕩탕), 用(용-誦송), 由(유-袖, 岫, 岫수-笛, 迪적-靑, 宙 紉주-抽추)가 있으며, 多音字의 예로는 射(야사), 佚(일/질)이 있다.

喉音 ‘ㅎ’을 성부로 하는 형성자의 초성자음이 구개음 ‘ㅅ’으로 반영되는 예로는 顯(현-濕습)이 있다.

여섯째, 위에서와는 달리, 같은 성부를 갖는 형성자에서 기본 성부의 초성음가들이 같은 발음 위치 내에서의 교체현상을 보이지 않고, 어떤 초성자음들은 탈락[零聲母]하거나 ‘ㄹ, ㅎ’의 초성자음으로 변화하는 현상들이 많다. 예를 들면, ‘各(각)’을 기본성부로 하는 형성자의 초성음가가 아음이나 후음간의 교체로 반영되지 않고 ‘落, 烙, 洛(락), 路, 露(로), 賂(뢰), 略(략)’에서와 같이 ‘ㄹ’로 반영되기도 하고, ‘額(액)’과 같이 ‘ㅇ’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多音字에서는 剌(경/략), 率(솔/률), 亨(평/형), 尙(상/향) 등의 예를 들 수 있으며, 형성자로는 東(간-欄, 蘭란-鍊, 練련), 監(감-藍, 檻, 籃, 覽람), 京(경-掠략-諒, 涼, 涼량), 果(과-裸라), 奴(노-拏라), 陸(목-陸륙), 凜(품-凜름), 內(내-內, 芮예), 乃(내-仍, 苐 孕잉), 立(립-泣읍-翊, 翌익), 亡(망-慌, 荒황), 每(매-誨, 晦, 悔회-海해), 勿(물-忽, 惚, 笏홀), 宣(선-桓환-暄, 萱, 喧환-垣 洹원), 失(실-佚일)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일곱째, 중성모음의 경우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교체, 단모음과 복모음의 교체,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의 교체,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의 교체, 고모음과 저모음의 교체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양성모음은 그것과 대응관계에 있는 음성모음으로 반영되는데, ‘單(단)’을 성부로 하는 형성자 ‘黻(단)’에서는 그대로 ‘ㄷ’로 반영되지만, ‘禪(선)’에서는 음성모음 ‘ㄴ’로 반영되었다.

또 단모음과 복모음의 교체로는 ‘仰’을 성부로 하는 형성자에서 ‘仰, 殃(양)’과 같이 ‘ㄷ’로 반영되지만, ‘迎(영)’에서는 복모음 ‘ㄴ’로 반영되었

다. ‘炎(염)’을 성부로 하는 형성자에서 복모음 ‘ㄹ’이 ‘琰(염)’과 같이 ‘ㄷ’로 반영되었지만 ‘談 淡(담)’에서는 단모음 ‘ㅏ’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의 교체 현상으로는 ‘爭(쟁)’을 성부로 하는 형성자 ‘靜, 淨(정)’에서 전설모음 ‘ㅈ’이 후설모음 ‘ㅊ’로 반영되었다.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의 교체현상으로는 ‘五(오)’를 성부로 하는 형성자 ‘梧, 悟(오)’에서는 ‘ㄱ’로 반영되지만, ‘語, 圃(어)’에서는 원순모음 ‘ㄱ’이 평순모음 ‘ㄴ’로 반영되었다.

고모음과 저모음간의 교체현상은 ‘未(미)’를 성부로 하는 형성자 ‘昧, 妹, 寐(매)’ 등에서와 같이 고모음 ‘ㅣ’가 저모음 ‘ㅐ’로 반영되고 있다.<sup>27)</sup>

이와 같이 중성모음의 변화양상은 자음의 변화양상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 발음체계는 2분법[반절법]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3분법[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중성모음의 발음이 약화되어 다양하게 분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따라서 중성모음을 교수·학습에 이용하기에는 좀 복잡하다고 하겠다.

여덟째, 종성자음 ‘ㄱ, ㄴ, ㄷ, ㅂ’은 서로 바뀌는 현상이 있다. 예를 들면, ‘旦(단)’을 성부로 하는 형성자 ‘但, 鞞, 袒(단)’에서는 종성자음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으나 ‘姐, 怙, 痘(달)’에서는 ‘ㄷ’으로 교체되어 반영되었다. 多音字의 예로는 按(안/알), 啣(즉/즐)이 있으며, 형성자로는 勿(물-勿), 吻(문), 立(립-翊, 翌의), 益(익-鎰, 溢일)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아홉째, ‘ㄱ, ㄷ, ㅂ’의 중성이 있는 소리는 ‘ㄱ, ㄷ, ㅂ’이 탈락하여 중성이 없는 소리와 서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인다. 우리나라 한자음에는 入聲韻인 폐쇄음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폐쇄음은 끝소리가 ‘-p, -t, -k’로 발음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ㄱ’, ‘ㄷ’, ‘ㅂ’받침으로 정착되었다. ‘ㄷ’받침의 경우는 폐쇄음 ‘ㄷ’이 유음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폐쇄음으로 끝나는 입성이 사라진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한자음 중에도 입성받침이 소멸되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가

27) 중성모음의 많은 예들은 앞에 제시한 자음의 변화현상을 살펴보기 바란다.

병존하여 반영 된다.

예를 들면, ‘曷(갈)’을 성부로 하는 형성자 ‘鞞, 渴, 礪, 竭, 葛, 褐, 蛄, 曷(갈)’에서는 종성자음이 그대로 ‘ㄱ’로 반영이 되었으나, ‘揭, 偈(계)’에서는 탈락되었음을 볼 수 있다. 多音字의 예로는 告(고/곡), 龜(구/균/귀), 契(계/글), 度(도/탁), 讀(독/두), 樂(락/악/요), 復(복/부), 不(불/부), 北(배/북), 匪(비/분), 殺(살/쇄), 塞(새/색), 說(설/세/열), 數(수/삭), 宿(숙/수), 食(식/사), 識(식/지), 惡(악/오), 易(역/이), 刺(자/척), 切(절/체), 暴(포/폭), 害(해/할), 晝(화/획)등의 예가 있으며, 형성자로는 告(고-鵠, 楷곡-酷혹), 莫(막-暮, 募, 謨, 慕, 摸, 摹, 模모), 辟(벽-譬, 臂비-嬖폐-避피), 卜(부-朴박-鳩, 卦, 扑복), 發(발-廢, 廢폐), 弗(불-沸, 費비), 世(세-泄설), 矢(시-疾, 嫉질), 識(시-識식-織, 職직), 是(시-寔, 混식), 亞(아-聖, 惡악), 夜(야-液, 掖, 腋액), 意(의-億, 憶, 憶, 臆억), 至(지-侄, 姪, 桎, 蛭, 經, 埴, 窒, 臆질-室실), 執(집-摯, 贄지), 甫(보-博, 縛, 搏, 薄박), 亥(해-核, 劾핵) 등이 있다. ‘ㄱ ㄴ ㅂ’ 이외에 ‘ㄴ’ 종성자음이 탈락되는 현상도 보이는데 ‘軍(군-揮, 暉, 輝, 輝휘)’와 ‘斤(근-圻, 沂, 祈기)’, ‘先(선-洗세)’가 있다. ‘六(륙)’이 ‘五六十(오륙십)’에서는 본음으로 소리 나지만 ‘五六月(오뉴월)’, ‘六月(유월)’에서는 ‘뉴’와 ‘유’로 소리 나며, ‘木(목)’이 ‘木瓜(모과)’에서는 ‘모’로, ‘十(십)’이 ‘十月(시월)’에서는 ‘시’로, ‘八(팔)’이 ‘初八日(초파일)’에서는 ‘파’로 소리 난다. 이와 같이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는 어문규정이 있는데, 모두 종성자음이 ‘ㄱ, ㄴ, ㅂ’임을 볼 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으로 형성자와 다음자의 음가변화 현상을 살펴보았다. 음가의 변화현상은 주로 ‘ㅂ, ㅍ, ㅍ’ 등 脣音[입술소리]간의 변화현상, ‘ㄷ, ㅌ, ㄴ’ 등의 舌音[혀소리]간의 변화 현상, ‘ㄷ, ㅌ, ㅅ’ 등의 齒音[잇소리]간의 변화현상, ‘ㄱ, ㅎ, ㅇ’ 등의 牙音[어금닛소리]과 喉音[목구멍소리]간의 변화현상의 규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舌音, 牙音, 喉音이 조음위치상 구개음인 齒音의 음가로 변화되는 구개음화현상이 있으며, 어떤 초성자음들은 탈락[零聲母]하거나 ‘ㄱ, ㅎ’의 초성자음으로 변화하는 형상이 많다.

중성자음 ‘ㄱ, ㄴ, ㄷ, ㅂ’은 서로 바뀌기 쉽고, 특히 ‘ㄱ, ㄴ, ㅂ’의 중성이 있는 소리는 ‘ㄱ, ㄴ, ㅂ’이 탈락하여 중성이 없는 소리와 서로 교체되는 현상이 보인다. 중성모음의 변화현상은 자음의 변화현상보다 더 다양하여 한자의 교수·학습에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形聲字와 多音字의 독음 변화 유형의 규칙을 통한 체계적인 한자 학습은 한자의 과학적 교수·학습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학습자의 한자 인식능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Ⅲ. 結論 및 提言

이상으로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서를 토대로 ‘한자영역’의 교수·학습 내용의 변천과 언어학적 관점에서 漢字의 表意文字의 특성과 聲符가 같은 形聲字와 여러 음을 가진 多音字의 독음유추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자영역’의 학습요소는 종래 교육과정에서의 교수·학습내용에 비하여 상당히 체계적이고 세분하게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정교육과정에 추가된 ‘한자의 형성과정’과 ‘한자자체의 변천과정’이 포함된 것은 字源을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이 이미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외래어의 한자표기라든지 의성어·의태어에서의 한자 학습을 위하여 ‘假借’에 대한 학습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정해설서에서의 제시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한자는 왜 表意文字라고 하는가’에서는 한자의 성질에 대하여 한글과 대조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한자는 문자의 표상방법에 근거하면 表意文字이며, 언어의 기록단위로 보면 形態素文字임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교육과정해설서에서 한자의 성질에 대한 규정을 단순히 ‘表意文字’라고만 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자의 음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서는 形聲字와 多音字의 독음변화유형을 살펴보았다. 音價의 변화 유형 규칙을 통한 체계적인 한자 교수·학습은 한자의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학습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과정해설서에서 70%이상이 형성자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정교육과정이 ‘漢文’ 교육중심으로 전환되었다고 해도 ‘한자영역’은 한문교과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학습요소이다. 한자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한자와 관련된 어휘, 문장은 물론 나아가 한자문화권의 문화와 소통에 대한 이해의 첩경이라 생각한다.

본 논문이 단편적일 수 있지만, ‘漢字’의 表意·表音의 특성에 대한 이해측면에서 ‘한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교수·학습내용의 체계적 설명의 단서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한자인식능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보다 심도 있는 후속논문이 나오길 기대한다.

<參考 文獻>

- 교육부, 제 1997 - 15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 제2006-75호 및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해설서 V』,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제 2011-36호[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김상홍·이강렬·박세경·한상조·김우정·김진봉, 『중학교 漢文1』, 지학사, 2009.
- 김홍철·신태영·강태선·이계원·김정훈·오국진, 『중학교 漢文1』, 장원교육, 2009.
- 박성규·윤재민·정동운·장진아, 『중학교 漢文1』, 두산동아, 2009.
- 송재소·조병덕·배기표·김호기·변유경, 『중학교 漢文1』, 다락원, 2009.
- 정환국·안기봉·황성하·양재훈·이한신·장현곤, 『중학교 漢文1』, 천재교육, 2009.
- 진재교·신영주·최돈욱·임성원, 『중학교 漢文1』, 장원교육, 2009.
- 황형주·김명수·최호영·신상필·안준용, 『중학교 漢文1』, 지학사, 2009.
- 姜信沆, 『韓漢音韻史 研究』, 태학사, 2004.
- 김기혁·최상진·김진혜·방성원·홍윤기, 『언어이야기』, 경진, 2011.
- 김종혁 저, 『형성자 중심 한자교육 시험백과』, 전통문화연구회, 2002.
- 金崇浩, 「漢字音을 活用한 漢字指導 方法論 試考-形聲字의 聲符를 中心으로-」, 『漢文學研究』 제16집, 啓明漢文學會, 2002.
- 김영옥, 「한자교육에서의 構形學 응용에 관한 연구 한문교육연구」, 『漢文教育研究』 第20號,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 蘇培成 著·李圭甲 譯, 『現代 漢字學』, 學古房, 2007.
- 서종학, 『문자생활의 역사』,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5.
- 안재철, 「개정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의 문제집」, 『漢字漢文教育』 第24輯,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0.
- 양원석, 「중국에서의 자원을 활용한 한자교육방법」, 『漢字漢文教育』 第14輯,

-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 엄익상, 『중국언어학 한국식으로 하기』, 한국문화사, 2002.
- 이권홍, 「한자 교수방법의 실제」, 『漢字漢文教育』 第24輯,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0.
- 이규갑, 『漢字學教程』, 차이나하우스, 2009.
- 王力 著, 李鍾振·李鴻鎮 共譯, 『中國言語學史』, 啓明大學校出版部, 1983.
- 李大遂 著·李容誠 譯, 『簡明實用 漢字學』, 중문출판사, 2001.
- 이돈주, 「한국한자음의 몇 가지 특징」, 임용기·홍윤표 편, 『연세국학총서 66 국어사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2006.
- 岑運強·郭莉, 「漢字 性質에 대한 討論 및 中國 漢字 初等教育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漢文教育研究』 第21號,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 전광진, 「한자의 성질에 관한 제 학설 탐구」, 『中國言語研究』 第13輯, 한국중국언어학회, 2001.
- 최동표·안종남 공저, 『한자정석』, 신아사, 2011.
- 한연석, 「構形學이론을 적용한 한자 학습 신장 방안」, 『漢字漢文教育』 第14輯,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5.
- , 「자원을 활용한 한자교수학습방법연구-고등학교한문교과서를 중심으로-」, 『漢字漢文教育』 第17輯,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 한은수, 「자원을 활용한 한자 교수·학습방법연구-초등학교 한자 교재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第17輯,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 ,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을 활용한 한자교수학습연구」, 한국교원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Abstract

*A study on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Chinese character*  
- Concentrated on 'Chinese character part'  
of Curriculum of Korean Classical Chinese Education / Jung Soon Young\*

This paper is a study of understanding Chinese character's ideographic characteristics from a linguistic point of view and inferencing methods of reading sounds which has the same sound elements between Phonetic compounding(形聲字) and Many sounds of one character(多音字) concentrated on educational curriculum manual.

It examines how the contents of 'Chinese character part' has been changing, focusing on the 2011 revised educational curriculum manual and finds linguistic traits of Chinese characters by questioning 'why chinese characters are called Ideograms', 'How to know Chinese character's sound easily'

'Chinese character part' is the most basic and significant element of learning despite the revised educational curriculum had changed to Chinese-character-centered education. Understanding linguistic traits of Chinese characters has to be preceded in order to teach and learn Chinese sentence well.

Therefore this paper willing to offer clues of scientific and reasonable ways to explain 'Chinese characters' based on understanding of Chinese character's ideographic and phonographic traits.

**【Key words】** Chinese characters, Ideograms, Phonogram, Phonetic compounding, Sound Element

투고일 : 5월 10일, 심사일 : 6월 12일, 게재확정일 : 6월 13일
--

\* Chungnam National Univ. / 7743jsy@hanmail.net